

12-41 (통권 제 512호)

2012. 11. 9.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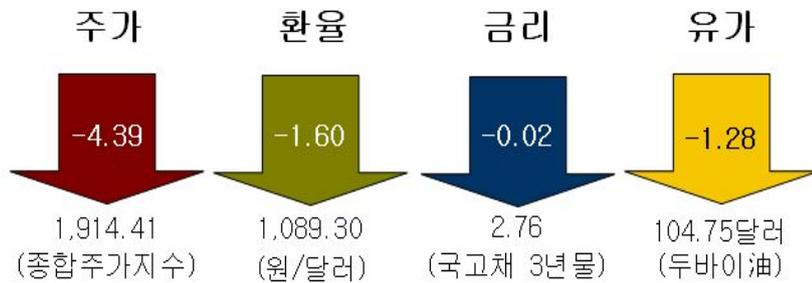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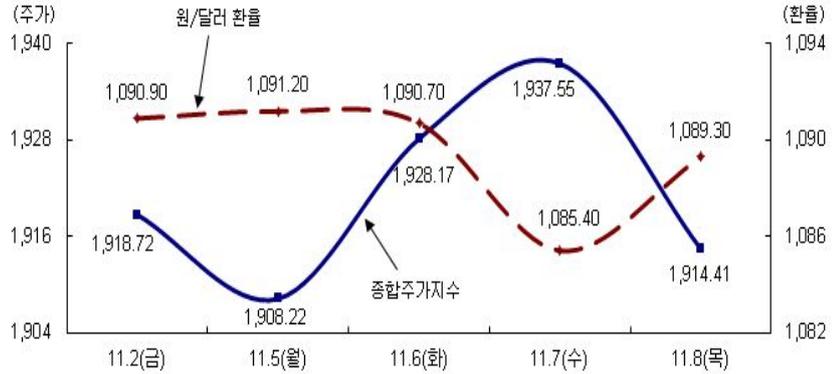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2013년 중국경제 전망과 시사점
- 8%대 회복 가능 예상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1.2~11.8)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2013년 중국경제 전망과 시사점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9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한 재 진 연구위원 (2072-6225, hzz72@hri.co.kr)

Executive Summary

□ 2013년 중국경제 전망과 시사점 : 8%대 회복 가능 예상

■ 중국경제, 회복 기대감 고조

중국의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 2010년 4/4분기 이후 7분기 연속 둔화되며, 시장의 우려가 증대되었다. 하지만 3/4분기는 수출을 제외하고 소비, 투자 부분이 소폭 회복되면서 저점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11월 8일 시진핑 시대로 진입하면서 중국경제에 대한 회복 기대감도 더욱 커지고 있다.

■ 2013년 중국경제 회복 가능성 진단

2013년 중국경제의 향방을 알아보기 위해 소비, 투자, 수출, 금융완화, 경기부양 등 5가지 측면에서 경기 회복 여력을 살펴보았다.

첫째, 소비 회복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고용 확대, 임금 상승, 물가 안정 지속으로 소비가 미약하나마 회복되고 있다. 소매판매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소비자심리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투자 둔화세도 약화되고 있다.** 건설 및 설비 투자 둔화세가 약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제조업 PMI지수가 10월 반등하며 투자심리도 회복되고 있다. **셋째, 수출 경기 회복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경기 둔화세가 지속됨에 따라 상반기 수출 경기가 냉각되었지만, 9월 수출증가율이 9.8%로 8월 2.7%보다 크게 반등하였다. 한편, 2013년에는 세계경제도 미약하나마 회복세로 반전될 것으로 보여 중국 수출 경기도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넷째, 금융 완화가 지속되고 있다.** 금리, 지급준비율 인하 등 금융통화 완화 정책에 따라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인민은행은 유동성 확대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본격적인 경기부양 효과와 신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까지 지방별 경기부양 규모가 약 2조 위안으로 추정되는데 이로 인한 GDP 상승효과도 기대된다. 더욱이 내년부터 시작될 차기정권의 경제 성향이 시장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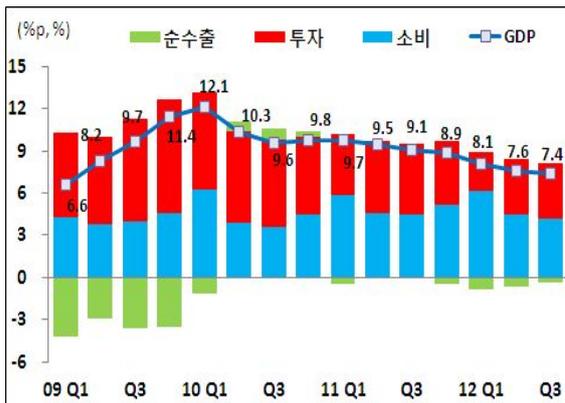
■ 시사점

중국경제가 저점을 지나 회복 단계에 접어들면서 2013년에는 8%대 초반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기대됨에 따라 우리 경제도 중국 경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첫째, 對中 수출에서는 단기적으로 중국경제의 점진적 회복에 맞춰 수출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전략에 맞춰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기존 중간재 수출위주의 對中 수출 패턴을 소비재 수출품목 확대 등 수출품목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 정부가 전지역에 걸친 경기활성화 정책을 2015년까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계획된 투자전략에 맞는 지역별 차별화 진출 전략 모색도 필요하다.** **넷째,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중국경제의 영향력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시장 개척도 필요하다.**

1. 중국경제, 회복 기대감 고조

- 중국 경제성장률이 지난 2010년 4/4분기 이후 7분기 연속 하락하였으나, 소폭 하락에 그치며 경기 저점을 형성
 - 중국경제는 지난해 4/4분기에서 올해 3/4분기로 오면서 경제성장률 낙폭이 감소, 경기 저점에 도달
 - 중국의 3/4분기 경제성장률은 7.4%로 지난 2010년 4/4분기이후 7분기 연속 하락
 - 하지만, 지난해 4/4분기 8.9%를 나타낸 후 올해 3/4분기까지 분기마다 낙폭이 각각 0.8%p, 0.5%p, 0.2%p로 감소되면서 경기 저점에 가까워짐
 - 더욱이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문 경기가 소폭 회복되면서 경기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3/4분기 소비와 투자 증가율은 각각 13.9%, 14.1%로 2/4분기보다 각각 0.2%p, 0.1%p 상승하는 등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수출은 지난 2/4분기 10.5%보다 3.1%p 하락한 7.4%를 기록했지만, 9월 수출증가율이 9.9%로 8월 2.7%에 비해 대폭 상승, 외수 회복 가능성 증대
 - 한편, 중국인민은행 이강(易綱) 부총재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7.5%를 다소 초과한 7.8%에 달할 것으로 전망¹⁾

< 중국 분기별 경제성장률 >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 >

구분	2011	2012				
	연간	1/4	2/4	3/4	8월	9월
GDP	9.2	8.1	7.6	7.4	-	
산업생산	13.9	11.6	9.5	9.1	8.9	9.2
소비	17.1	14.8	13.9	14.1	13.2	14.2
투자	23.8	20.9	20.4	20.5	20.2	20.5
수출	20.3	7.6	10.5	7.4	2.7	9.9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 주 1. 2/4분기 발표는 상반기로 발표하는 관계로 2/4분기 소비(소매판매 증가율, 수출 산업생산 지표는 4, 5, 6일 평균치로 계산)
- 2. 투자는 도시고정자산투자 누적 기준.

1) 이강 부총재는 지난 10월 12일, 도쿄에서 개최된 IMF와 세계은행이 주최한 연합총회에서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8%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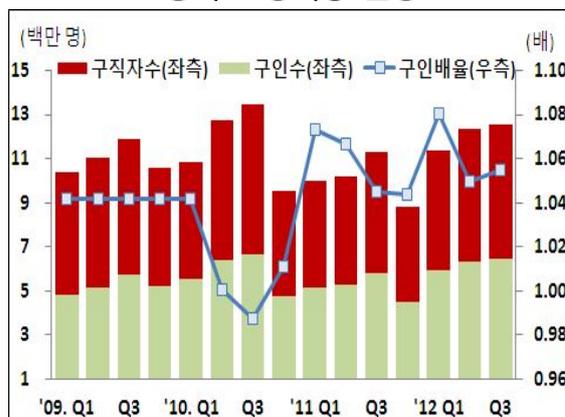
2. 2013년 중국경제 회복 가능성 진단

① 소비 회복 가능성 확대

○ 고용 확대, 임금 상승, 물가 안정 지속 등으로 소비 회복 가능성 확대

- 일자리 확대에 따라 고용 상황 개선, 임금 상승 및 물가 안정 지속
 - 구인배율은 2012년 3/4분기 1.06배를 나타내며, 지난 2010년 3/4분기 1.0배 이하로 하회한 이후 8분기 연속 1.0배 이상 상회 지속. 3/4분기 신규취업자 증가율은 3%로 2/4분기 6%보다 하락했으나, 한 자릿수 증가세 지속
 - 1인당 평균 임금도 2012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11.6% 증가하며, 지난 2009년 4/4분기이후 10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 지속
 -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9월 1.9%로 지난 1월 4.5%에 비해 2.6%p 하락하며, 물가 안정화 지속. 특히 지난 1월 10.5%였던 식품 소비자 물가지수는 9월 현재 2.5%로 대폭 하락
- 이에 따라 소비자 심리가 최근 개선되면서 소매판매도 2개월 연속 증가세
 - 소비자심리지수는 9월 100.8p로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에 100선을 상회하며 소비 심리 개선
 - 이에 따라 소매판매 증가율은 9월 14.2%로 전월 13.2%보다 소폭 반등하며, 2개월 연속 상승

< 중국 고용시장 현황 >



자료 : 중국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주 : 구인배율은 구인수/구직자수로 수치가 높을 수록 고용 호전 의미.

< 소비 시장 경기 지표 >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② 투자 둔화세 약화

○ 투자도 건설 및 설비투자 증가율 둔화세가 약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PMI지수도 반등하며, 투자심리 회복 기대감 고조

- 투자관련 주요 지표들이 소폭 상승하는 등 투자 둔화세 약화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올해 들어 소폭 감소세를 보이나, 여전히 20%대의 견실한 증가세 지속
- 건설투자 증가율은 올해 1월 약 20%로 작년 12월 29%보다 크게 둔화되었으나, 3월 이후 6개월 연속 21%대 증가세 지속
- 아울러, 지난 3월 이후 5개월 연속 20%대에 머물렀던 설비투자 증가율 역시 8월 21%대로 소폭 상승

- 아울러 제조업 PMI지수도 둔화세가 약화되고 있고, 투자심리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중국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주로 국유기업 제조업 업황을 나타내는 10월 관방 PMI지수는 50.2p로 지난 8월 49.2p로 둔화된 이후 2개월 만에 50선 상회
- 주로 민간기업의 제조업 업황을 나타내는 HSBC PMI지수도 10월 49.5p로 지난 7월 49.3p 이후 3개월 만에 50선에 근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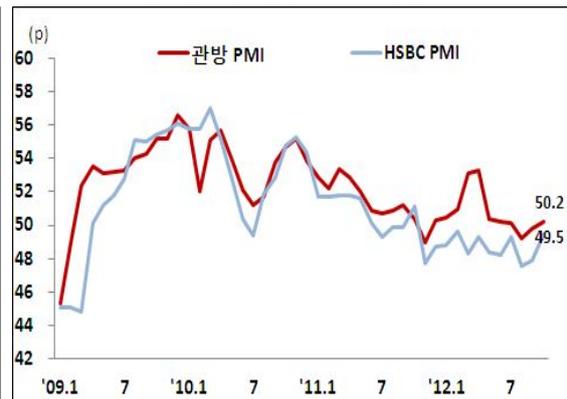
< 투자 경기 지표 >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주 : 고정자산투자는 도시 기준 누적 증가율.

< 중국 제조업 PMI 지수 >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블룸버그.

2) 제조업 PMI 지수는 관방과 HSBC 등 2개의 발표처로 구분. 관방 PMI지수는 중국 국가통계국과 물류·구매연합회에서 800개 국유·대형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된 지표이나 HSBC PMI지수는 350개의 민간·중소형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되어 지표 간 해석의 차가 존재.

③ 수출 경기 회복 가능성 증대

○ 올해 상반기 글로벌 경기 급감으로 중국의 수출 경기도 냉각되었지만, 최근 회복 여력이 살아나면서 내년도 수출경기의 점진적 회복 기대감 고조

- 9월 수출증가율은 약 10%로 반등하며 수출 경기 회복 기대 고조

- 수출증가율은 9월 약 10%로 올해 7월 1.0%로 둔화된 이후 2개월 만에 재반등
- 수입증가율도 9월 2.3%로 8월 -2.6%보다 크게 반등하며 회복 조짐
- 이에 따라 9월 무역수지는 28억 달러 흑자를 보이며, 올해 6월 32억 달러 흑자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규모 시현
- 한편, 이우소상품경기지수³⁾도 9월 1009p로 지난 4월 1020p이후 5개월 만에 1000p 상회, 소비재 수출 경기 회복 조짐

- 아울러 중국의 수출비중이 높은 미국, 유로존 경제가 소폭 개선이 예상되면서, 내년 수출경기도 소폭 회복 전망

- 중국의 對ASEAN, 對미국, 對일본 수출증가율은 9월 각각 25%, 5.5%, 2.2% 로 8월보다 크게 상승했으며, 對EU 수출도 8월보다 2%p 상승한 -10.7% 증가
- IMF(2012.10)에 따르면, 2012년 미국,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모두 2.2%로 지난해 비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2013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 지속 전망
- EU지역도 여전히 잠재 위협요인들이 존재하지만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소폭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 추이 >



자료 : 중국해관총서.

<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

구분	2010	2011	2012(E)	2013(E)
미국	2.4	1.8	2.2	2.1
유로존	2.0	1.4	-0.4	0.2
일본	4.5	-0.8	2.2	1.2

자료 : IMF.

3) 이우(義烏)소상품경기지수(기준선=1000)는 주로 일용품, 공예품, 완구, 신발 등 소비재 상품 거래를 지수화 한 것으로 중국의 소상품(소비재) 시장 업황을 대표함.

④ 금융 완화 지속

-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와 공개시장조작 등 금융통화 완화 정책에 따라 5월 부터 유동성(M2) 증가 지속
 - 올해 들어 두 번의 지급준비율 인하 등 금융통화 완화 정책에 따라 유동성이 크게 개선
 - 중국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지난 2월, 5월 각각 0.5%씩 인하하며, 2011년 3, 4월 수준인 20%로 하락
 - 예·대금리도 지난 6, 7월 2개월 연속 각각 0.5%p, 0.56%p 인하하며, 지난 2008년 말 이후 약 46개월 만에 완화 조치 단행
 -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M2증가율은 9월 14.8%로 지난 5월 이후 증가세 지속
 - 아울러, 중국인민은행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시중은행에 대한 유동성 확대 유도
 -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중국인민은행은 채권을 매입해 시중에 자금을 푸는 역환매조건부채권(Reverse Repurchase, 7일치) 방식의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약 2조 위안을 시중은행에 공급
 - 아울러, 14일치 역환매조건부채권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약 1조 2,000억 위안을 발행하며, 유동성 확보 조치 단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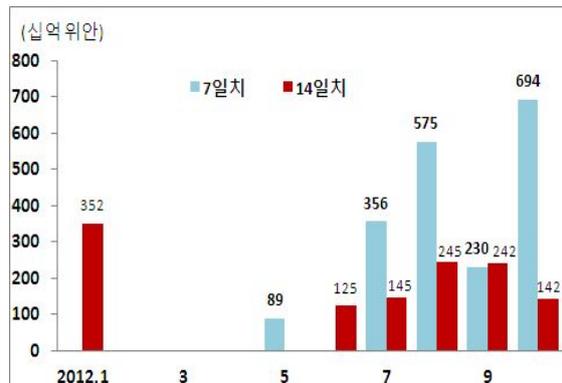
< 중국의 금리와 유동성 증가율 >



자료 : 중국인민은행.

주 : 유동성 증가율은 M2(총통화) 증가율을 의미.

< 중국인민은행의 역환매조건부채권 매입량 >



자료 : 중국인민은행.

주 : 역환매조건부채권이란 중국인민은행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채권을 매입, 시중에 자금을 푸는 공개시장조작.

⑤ 본격적인 경기부양 효과 기대

○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 계획이 최근 중국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도 발표되면서, 4/4분기 경기부양 효과 기대감 상승

- 연이은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중국정부 정책 발표

- 지난 6월 국무원에서 가전, 소형차 등 에너지 절약형 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행 이후 9월에는 기초 인프라 투자관련 정책 발표

< 최근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

구분	소비(6월)	투자(9월)
정책내용	- 향후 1년간 가전제품, 소형차 등 에너지 절약형 제품에 대해 363억 위안의 보조금 지원	- 지하철 건설 투자 : 8천억 위안 규모 - 13개 도로건설, 10개 도시기초 건설투자, 7개 항구 건설 계획

자료 : 중국 국무원, 중국 국가발전개발위원회.

- 더욱이 올해 하반기까지 지방별 경기부양 총액이 약 2조 위안으로 추정됨에 따라 연말 이후 중국 경제의 회복 기대감이 고조

< 중국 지방 정부의 경기부양 계획 >

구분	발표시기	투자 금액	주요 내수 부양 계획
광둥	7.16	2,353억 위안(기간 불명)	- 44개 민간자본 유치 항목 제시 : 개 부문 교통 등 물류 인프라(1,280억 위안)
	8.20	1조 위안 이상('11-'15)	- 177개 부문
천진	8.21	1.5조 위안('12-'15)	- 석유화학, 그린에너지 등 10개 산업부문 집중 투자
산서	8.20	2조 위안(기간 불명)	- 공업, 농업 등 분야 집중 투자
충칭		1.5조 위안('11-'15)	- 전 산업분야 집중 투자
복건	8.17	1.4조 위안('11-'15)	- 기술집약산업 집중 투자('12년 2,000 억 위안 2013년 2,600억 위안)
호북	8.15	3,131억 위안(기간 불명)	- 교통, 운수 등 82개 중대 부문 투자
장춘	8.14	20억 위안('12 하반기)	- 실물경제 활성화
광주	8.7	2,000억 위안('12 하반기)	- 지하철, 공항 등 기초 인프라 투자
창사	7.25	8,292억 위안('12 하반기)	- 서민경제, 교통, 공공시설, 산업 등 19개 중대 부문 투자
귀주	7.23	3조 위안('11-'20)	- 여행 산업, 교통, 공공시설, 병원 등에 집중 투자

자료 : 차이신(2012.8.27.)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아울러 11월 등장한 차기정권이 안정적인 지속성장을 위해 시장친화적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면서, 내년도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고조

- 중국의 매 정권 초기마다 높은 경제성장 기조 유지

- 3세대인 장쩌민은 1993년 정권이양 이후 경제성장률은 14% 수준이었으며, '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9.9% 달성
- 4세대인 후진타오 정부도 2003년 10%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10년간 연평균 10.5%의 고성장 유지

- 11월 8일부터 시작된 당 대회에서 차세대 지도부로 부상한 시진핑 정권은 대부분 인물 성향이 경제 개혁을 추구하고 있어 내년도에는 대규모 경제활성화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 고조

- 중국은 올해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를 놓고 '보시라이 사건' 등 정파간 권력 분쟁이 심화되면서 정국 불안감 가중 초래
- 차세대 지도부는 경기둔화 등 현안 해결은 물론 정치 부패문제 해결, 성공적 성장패턴 전환, 소득격차 해소 등 경제 구조적 문제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역대 정부의 성장률과 키워드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시진핑 시대의 차기 예상 리더 성향 >

현직	인물	경제 개혁 성향
부주석	시진핑(59)	중립(보수성향)
부총리	리커창(57)	시장 친화적
부총리	장더장(66)	시장 친화적 (한반도 문제 전문가)
부총리	왕치산(64)	시장 친화적
당 선전부장	류원산(65)	중립
천진시 서기	장까오리(66)	시장 친화적 (석유 업종 종사)
상해시 서기	위정성(67)	시장 친화적
당 조직부장	리위엔차오(62)	중립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정치국 상무위원이 7 인으로 구성된다면 표내 순서상 6명은 거의 확정적이나, 남은 1자리를 놓고 위정성 상해시 서기와 리위엔차오 당조직부장 간 경합 예상.

4) 2012년 2월 2일 왕리전이 충칭시 공안국장에서 해임되면서 시작된 본 사건은 3월 전인대 폐막과 함께 3월 15일 보시라이인 충칭시 당서기 직 해임, 4월 10일 보시라이 중국공산당 정치국원 및 중앙위원 직무 정리로 확산되며 정국불안 초래.

3. 시사점

- 중국경제는 내·외수 경기 회복 가능성 증대와 함께 시진핑 정부의 등장으로 예상되는 경기활성화 효과 기대감으로 2012년 4/4분기부터 중국 경제는 점차 회복세로 전환될 전망
 - IMF(2012.10)에 따르면, 2012년 중국 경제는 올해 7월 수정치보다 하향 조정된 7.8%로 전망하고 있어, 4분기 7.7%이상 증가 예상
 - 아울러 주요기관들이 내년도 중국 경제성장률을 8%대 초반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차기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 추진 여부에 따라 8%대 중반 달성도 가능 예상
- 2012년 4/4분기부터 중국경제의 점진적 회복세가 기대되면서 우리경제도 이에 맞는 장·단기적 對中 수출 및 투자 전략 모색 필요
- 對中 수출에서는 단기적으로 중국경제의 점진적 회복에 맞춰 수출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노력 지속 필요
 - 수출촉진을 위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 필요
- 장기적으로는 기존 중간재 수출위주의 對中 수출패턴의 전환을 준비
 - 향후 중국의 소비시장 확대 정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對中 소비재 수출품목 확대 등 무역 품목 다변화 전략 필요
- 또한 중국 정부가 전지역에 걸쳐 경기활성화 정책을 2015년까지 추진하고 있어서 이미 계획된 투자 전략에 맞는 지역별 차별화 진출 전략도 모색 필요
 - 2011년부터 시작된 12차 5개년 계획이 사실상 내년부터 가속화될 전망이며, 주로 중·서부 및 동북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
- 다만,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중국경제의 영향력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시장 개척도 필요
 - 對中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등 다양한 신흥시장 개척 필요

경제연구본부 연구위원 한재진 (02-2072-6225, hzz72@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0년					2011					2012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3.0	3.9	3.7	2.5	2.3	1.7	0.4	1.3	1.8	3.0	2.2
유로 지역	1.9	0.4	1.0	0.4	0.3	1.4	0.8	0.2	0.1	-0.3	-0.4
일본	4.4	6.1	5.2	2.3	-0.6	-0.9	-6.8	-1.5	7.0	-2.3	2.2
중국	10.3	11.9	11.1	10.6	9.8	9.2	9.7	9.5	9.1	8.9	7.8

주: 1) 2012년 전망치는 IMF 2012년 10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11월 2일	11월 8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30	3.16	1.88	1.72	1.62	-0.10%p
	엔/달러	81.19	80.66	77.66	80.18	79.97	-0.21¥
	달러/유로	1.3350	1.4492	1.2955	1.2946	1.2769	-0.0177\$
	다우존스지수(p)	11,578	12,414	12,218	13,093	12,811	-282p
	닛케이지수(p)	10,229	9,817	8,455	9,051	8,837	-214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8	3.76	3.34	2.78	2.76	-0.02%p
	원/달러(원)	1,134.8	1,067.7	1,151.8	1,090.9	1,089.3	-1.6원
	코스피지수(p)	2,051.0	2,100.7	1,825.7	1,918.8	1,914.4	-4.4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11월 2일	11월 8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1.40	95.18	99.22	84.85	85.09	0.24\$
	Dubai	88.80	106.75	104.89	106.03	104.75	-1.28\$
CRB선물지수	332.80	338.05	305.30	292.29	291.87	-0.42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E)	2013(E)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8	3.4	3.6	2.5	3.5	
	민간소비 (%)	2.9	1.6	2.3	1.3	2.9	
	건설투자 (%)	-7.1	-3.0	-5.0	-0.2	2.5	
	설비투자 (%)	8.9	-1.1	3.7	1.6	5.6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81	184	265	310	260	
	무역수지 (억 달러)	153	155	308	263	268	
	수출 (억 달러)		2,736	2,816	5,552	5,488	6,026
		(증가율, %)	23.6	14.9	19.0	-1.2	9.8
	수입 (억 달러)		2,582	2,662	5,244	5,225	5,758
		(증가율, %)	26.7	20.2	23.3	-0.4	10.2
소비자물가 (평균, %)		3.9	4.1	4.0	2.4	2.6	
실업률 (평균, %)		3.8	3.0	3.4	3.3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2	1,114	1,108	1,125	1,095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